여월동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 명예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

부천지방회 여월동교회(윤경일 목사)가 지난 4월 30일(주일) 오후 3시에 창립 40주년을 맞아 1~3부로 나누어 감사예배와 장로장립, 권사취임, 명예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 등 임직식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지방회부회장 하수경 목사(맑은샘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장 정기복 목사(양지교회)가 '사명자 3가지 소유'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는 담임 윤경일 목사의 사회로 장로장립을 위한 기도와 임직자 소개, 서약, 안수례, 성의 착용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권사취임도 기도와 취임자소개, 서약, 안수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명예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식도 이어 진행되었다. 3부 축하와 권면의 순서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를 위해 박병두 송영진 이길로 강명국 홍사진 김원교 김진용 차창선 최상현 김용태 이상수 우제투 이동선 유명수 정영달 목사와 이동규 석창성 허병철 장로가 안수위원 또는 각각 순서를 맡아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했다.

다음은 이날 임직자들의 명단.

▲장로 장립:이승호 ▲시무권사 취임:김문자 박경화 옥진명 ▲명예장로:유대용 ▲명예권사:고상순 이정자.

부천지방회주재기자 이상수 목사

사랑의동산교회, 창립 2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35명의 일꾼 세우고 지역복음화 위해 앞장설 것 다짐

강서지방회 사랑의동산교회(김홍식 목사)가 지난 4월 30일(주일) 오후 3시에 창립 23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거행했다. 1부 감사예배는 강서지방회 부회장 하늘바람교회 전승학 목사의 사회로 부서기 봄교회 이명모 목사의 기도, 서기 하늘바람교회(구래동) 김덕중 목사의 성경봉독, 전 총회장 개동교회 윤종관 원로목사가 '건강한 교회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 임직자들에게 "거룩한 교회를 위해 몸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으며, 안디옥교회 홍석영 목사의 헌금기도가 이어졌다.

이어서 2부 임직식에서는 김홍식 담임목사의 사회로 한마음교회 서강석 목사가 임직자를 위한 기도를 했으며, 안수식에서 명예장로 4명, 장로취임 1명, 장로장립 2명, 안수집사 취임 2명, 안수집사 안수 6명, 명예권사 추대 3명, 권사취임 1명, 권사 16명 총 35명이 서약과 안수를 통해 귀한 일꾼으로 세웠다. 3부 축하와 권면 시간에는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와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병하 목사의 축사, 송축교회 송재원 목사의 격려사, 마조교회 이광열 목사의 권면에 이어 축하패 증정의 시간과 봉성교회 한경상 원로목사의 축도로 임직감사예배를 모두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명예장로 추대:박영철 경방호 염해균 박길성 ▲장로취임:김지겸 ▲장로장립:정영진 이상기 ▲안수집사취임:김성현 심기섭 ▲안수집사임직:이덕순 차정규 변현돈 박근수 이인철 김선덕 ▲명예권사추대:김길자 박필숙 장순희 ▲권사취임:김선영 ▲권사임직:송숙자 윤순자 조영옥 한현숙 이지윤 한행순 유미간 장인화 김서연 정재숙 오옥숙 여명희 이혜선 윤혜영 노미경 김보연.

강서지방회주재기자 이명모 목사

강서소망교회, 추대 및 임직감사예배

명예안수집사 및 명예권사 추대 · 안수집사 권사 세워

서울서지방회 강서소망교회(치리 김현기 목사, 목영두 목사)는 지난 4월 30일 '추대 및 임직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지방회 부회장 송기정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1부 감사예배에서 지방회장 고신원 목사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란 설교로 임직자와 성도들에게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치리목사 김현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임직식에서는 '최천석 김인철 이종환'씨를 안수집사로, '박춘희 장금자'씨를 권사로 각각 안수하여 세웠고, 3부 추대식은 이종환 안수집사를 명예안수집사로, 김말영 김성인 장금자 권사를 명예권사로 추대했다. 4부 권면과 축하의 시간에 강서소망교회 목영두 목사가 추대패를 수여했고, 전 지방회장 이종이 목사의 축사, 원나실 성도의 축주가 있은 후 치리목사 김현기 목사의 마침기도로 강서소망교회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마쳤다.

고신원 강필식 김현기 송기정 윤효석 이종이 정성환 목사, 선종영 최광식 최봉주 장로, 최천석 안수집사, 원나실 성도가 행사의 순서를 맡아 '강서소망교회 추대 및 임직감사예배를 더욱 빛나게 했다.

서울서지방회주재기자 송기정 목사

초장교회, 임직감사예배

창립 32년 만에 첫 번째 장로 세워

서울북지방회 초장교회(진영복 목사)가 4월 23일 오후 3시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진영복 담임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예식은 감사예배, 장로 장립식, 안수집사 안수식, 권면 및 축하의 순서로 마쳤다.

예배기도는 문성호 목사(지방회부회장), 성경봉독은 박찬용 목사(지방회부서기), 설교는 배상길 목사(지방회장)가 계 3:7-13절을 본문으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옮겨지지 않는 칭찬만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는 말씀을 전했으며, 이낙춘 목사(지방회회계)의 봉헌기도와 구광모 청년(초장교회)의 봉헌송, 박주동 목사(전 지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창립 32년 만에 김영조 안수집사를 교회 첫 장로로 세우는 뜻깊은 장립식을 가졌다.

장립식을 마친 후에는 김경환 집사를 안수집사로 세우는 안수식을 거행하고, 김경환 신임안수집사의 형님인 김민찬 가족(주안장로교회)의 특송과 차익성 목사(전지방회장)의 권면, 노병호 목사(전지방회장), 황성환 목사(전지방회장)의 축사와 김영조 신임장로의 답사가 있었고 김명산 목사(전지방회장)의 축도로 임직식을 마쳤다.

서울북지방회주재기자 박찬용 목사

영광교회, 이전감사예배

교회부흥을 위해 동역자들의 기도 당부

천안아산지방회 영광교회(최홍주 목사) 이전 감사예배가 지난 4월 25일(화) 있었다.

감찰장 김성임 목사의 사회, 이종석 목사(지방회 부회장)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성택 목사의 '믿음으로 가라'(민 13:27-33)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 장내성 목사(용산 초대교회)의 축사와 김규석 목사(성월교회)의 격려사, 동시작가 이정신 원장(생골문화원)의 축시로 교회 이전을 축하했고, 이양표 목사(전지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영광교회는 1982년 8월에 경기도 안양에서 최홍주 목사에 의하여 개척되었고, '영광교회'라는 이름은 고 김홍조 목사(전성결대학장)께서 지어주셨다. 영광교회 부흥을 위하여 동역자들의 기도를 부탁한다.

천안아산지방회주재기자 이양표 목사

성화교회, 장로장립 등 임직감사예배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해 헌신 다짐

경기지방회 성화교회(유선태 목사)가 지난 4월 23일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에서 지방회 회장 정세홍 목사의 '주님의 좋은 일꾼'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2부 장로 장립 및 안수집사 · 권사 임직식은 심환구 목사의 기도로 임직 안수식이 진행되었다. 3부 축하 및 권면 그리고 축사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임직자임을 확인하며 더욱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임직자(장로:유미경, 안수집사:박정범 유선용, 권사:정명화 김지선 오현주)가 되기를 결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식을 위해 공재영 성일경 박영수 전상욱 서성권 목사와 이정숙 장로가 행사의 순서를 맡아 수고했다.

경기지방회주재기자 한민기 목사

밝은예능교회, 이운성 목사 은퇴감사예배

지난 4월 23일 효민교회에서 안양지방회 평촌감찰 주관으로 은퇴예배가 진행됐다. 60의 늦은 시기에 목회로의 부르심을 받은 이운성 목사는 "짧지만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랑과 섬김으로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안양지방회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평촌감찰장 백운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지방회장 유훈주 목사의 설교와 효민교회 이익로 목사의 축사, 전 총회장 김두성 목사의 격려사, 전 총회장 김윤석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여교역자회 회장 조명선 목사와 임원들이 함께 축하하며 선물을 전달했다.

안양지방회주재기자 권순달 목사